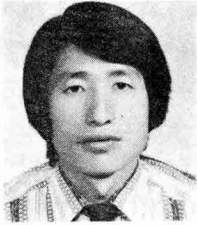


광산지역 작업환경

측정을 마치고



대구경북지방 산업위생과장 성수원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85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광산지역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되었다.

광산지역의 작업환경측정은 몇년전에도 해본 적은 있었으나 대대적인 측정은 이번이 처음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때까지 이곳 광산지역의 작업환경측정은 M 종합병원에서 실시해 왔으나 진폐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은 대구·경북지방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이지역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되므로 첫인상을 좋게 심는것이 중요할것 같아 굉장히 조심이 되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역시 보건진단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출발하기전에 미리 전문서적도 보고 경험에 의해서 아는것도 있고 또한 광산지역을 많이 다녀본 사람한테서 조언도 얻고 총포 화약 안전기술협회에서 발간하는 화약류 제조 보안관리 책임자 교육 교재도 입수하여 발파의 기초이론과 발파후의 유해가스가 폭약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개는 H₂S, NO₂, CO, CO₂, CH₄ 등의 가스가 발생된다는 것도 알고 하였으나 그래도 도저히 자신감이 없었다.

막장내에는 분진이 많이 비산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등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벌써 내 머리 속에는 결과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리에도 익숙치 못하여 사전에 몇번 Y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여 대략적인 위치는 알게 되었다.

첫날 가기로한 T광산의 경우는 전화가 없어 자세한 위치를 알지못해 수없이 물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몰랐다. 대개가 사업주가 바뀌면 광산 이름도 바뀌므로 잘 모른다는 변이었다.

한참후에야 겨우 T광산을 찾았을때는 몹시 피곤하였으나 담당자가 반겨주어 피곤함을 쉽게 잊을수가 있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다.

“전화가 사무실에 없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화는 마을에 한대 있는데 급한 일은 그리로 연락하면 전해주며 일과후에는 담당자인 자기 집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명함을 건네 주었다.

B광산의 경우는 매시간 많은양의 물을 모터로서 피내지 않으면 작업이 힘들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왔으며 측정할려고 가는곳은 인차를 타고 15편정도(1편은 수직 50m정도의 거리임) 내려간 후 인차에서 내려 수평거리 200m정도 가니까 작업자가 일하는 막장이 나왔는

데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를 보니 무한히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한지 얼마나 되십니까?”

“이 회사에서만 15년정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광산에서만 약 30년정도 근무한 것을 이야기로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치고 술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나의 제의는 받아 들여주지 않았다. 나는 매우 섭섭하였으나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폐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현재로 더이상 광맥이 발견되지 않아 생산량이 적어질 것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었다. 막장에서 휴식시간이 끝날때쯤 지금까지 가장 가슴아팠던 일이 타다남은 연탄이 길가에서 버려져 있을때가 가장 마음 아팠다고 이야기할때 정말 내 가슴에도 뭔가 와닿는 아픔을 느꼈다.

H광산의 경우는 현장사무실은 산아래 있었으나 갱은 산중턱에 있어서 봉고차(작업환경측정반차)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자기회사 짚차로 작업을 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짚차 역시 바로는 올라 갈수가 없어서 한번은 직진하여 올라가고 또한번은 후진으로 올라가기를 수십번 반복하여 자기광산 입구까지 가서 측정 한후 내려왔을때는 오후 4시쯤 되었다. 점심을 먹고 싶어도 먹을곳이 없어 점심도 먹지 못하고 다시 숙박지로 돌아오니 저녁 6시가 되어 점심 겸 저녁을 먹어야하는 괴로움도 있었다.

O광산 역시 전화가 없어 무작정 가다 O광산 차를 만나서 우리 봉고차는 산중턱에 세워두고 모든 측정 장비를 트럭에 옮겨실고는 가파른 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 그 갱입구가 산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간 트럭은 20년전에 쓰던 차로 정말 골동품과 같았고 이런 종류의 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 한대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산 정상에 내려서 밑을 내려다보

니 한편으로는 등산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나 어쩐지 어깨에 맨 측정장비가 기분을 어색하게 하는것 같았다.

W광산은 비포장도로로만 2시간정도 가서 갱 입구까지는 걸어서 40분정도 걸리는 곳이었으며 달리는 차안의 먼지가 너무 많아 차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진마스크를 쓰고가는 해프닝이 벌어졌으며 분진측정기로 차안의 먼지 농도를 측정해 보니 150~200 CPM정도 카운터가 되었다. 이러다간 산업보건의 사각지대가 바로 이 차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K광업소는 면소재지에서 30km 거리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가도가도 끝이 없고 또 봉고차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 같은 생각이 들어 돌아 나올까 생각하는데 J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계로 K광산에 택시를 대절해서 갔다가 2~3일간 휴무인 관계로 되돌아 오던중 우리와 마주쳐서 K광산은 휴무니까 되돌아 가자고 했을때 정말로 반가웠다. 꼭 등산 갔다가 길을 잃었을 때 구세주를 만난것 같은 기분이었다. 난 J근로감독관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전화로서 확인할수 있는것도 이렇게 대절을 해서 와야하는 어려운 고충이야기며 시간만 허비했다는 J감독관의 넋두리를 조금은 이해할것 같았다. 꼬불꼬불한 “넋재”와 “노루재”를 넘어 S제련소에 도착하니 보건관리자이시며 원장선생님이 우리를 반가이 대해 주었다. 원장님께서도 그 옛날에는 보건협회에도 근무하셨다면서 우리들의 측정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셨으며 그때의 측정장비에 비하여 너무나 현대식 장비를 갖추었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시면서 보건협회 전회장이신 최박사님의 안부와 회장님 크리고 여러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어 꼭 옛친구를 만난 것처럼 포근함을 느낄수 있었다. 측정을 마치고 나올때는 정문까지 배웅을 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여름철에 오라며 그때에는 꼭 돌구이를 해주시겠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해주실때는 정말 고마워서 지금도 감사의 마음 잊을수가 없다. 유난

히도 춥고 눈이 많이 와 더욱 힘들었던 광산지역 작업환경측정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면서 나의 머리속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고생한만큼 보람도 컸고 좋지만은 않은 근로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에게 고개 숙여지며 연탄한장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다. 아무쪼록 대한

산업보건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광산 근로자들에게 환경개선과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느덧 나의 마음은 따뜻한 우리집 온돌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휴 게 실

우리는 한솥밥 친구

부산지부 최 주 봉

분주했던 지난 85년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찬 86년 새해를 맞고 보니 한편으로는 서운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벅차움을 느끼게 된다.

옛그저께 불던 바람만 해도 살갓이 따가울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입춘이 어제 지나서인지 오늘 불어오는 바람은 옷깃에 스며들어도 차갑지가 않다.

머얼리 남쪽 바다에서 훈훈히 불어오는 봄바람을,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껏 크게 호흡하며 유리창가에 아롱지는 아지랑이의 생생함에 벌써 봄이 완연했음을 느끼면서 우리 직장 가족들과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지난해에는 우리 부산지부 센타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동료들의 수고가 너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때로는 출근시간 훨씬 전인 아침 6

시~ 7시경부터 저녁 7시~8시경까지 바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더우나 추우나 불평 한마디 없이 네할 일 내할 일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부산지부 팀!

밤 10시가 넘도록 해도 해도 밀리는 신체검사 결과표를 작성하는 건강관리과.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검진하고 나면 머리에 먼지가 뽀오얀 검진팀.

다른 지부관내보다 고무제품공장과 철광주물공장이 많은 관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산업위생팀.

하루종일 수고하고 돌아오는 저녁때면 얼굴이 온통 연탄집 아저씨마냥 땀과 먼지와 쇠가루로 뒤범벅이 되어 있곤 한다.

새까만 탄광촌 사람들은 모두 미남들이라 생각해 본다.